

지역 소식통



부안해양치안협의회 정기회의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해양치안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6일 해양치안협의회 김진태(부안수산업협동조합장) 위원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5차 해양치안협의회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로 해양경찰 추진 업무에 대한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행정기반을 구축해 강제 해결 유도로 자율적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부안=이옥수 기자

내년도 예산안 5454억원 편성

고창군, 올해 보다 10.68% 증가... 내달 14일 군의회 심의 거쳐 의결·확정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내년도 예산안을 5454억원 규모로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같은 규모는 올해에 비해 526억원(10.68%)증가한 것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9억원 증가한 5257억원, 특별회계는 57억원 증가한 197억원으로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보건분야가 21.42%(인 1126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100억원으로 20.93%를 차지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23억원(13.76%), 환경보호분야 623억원(11.86%), 문화 및관광분야 356억원(6.78%)순이다.

군은 군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 미래의 푸른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중점 투자사업으로 센트럴

파크조성사업(89억원),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사업(34억원), 마을 노후 우수관 정비사업(5억원), 터미널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3억원), 고수 해오름 생활 중심마을 조성사업(15억원), 고창읍사무소 신축 토지매입(30억원),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사업(3억원), 공공임대주택 기반시설 설치(6억원), 1읍면 1명소 가꾸기사업(1.5억원), 교촌마을 회관 뒤 도로개설공사(17억원), 무장면 소재지 도로개설공사(10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골고루 잘사는 아름다운 청정하고 고창을 만들기 위한 국·도비 신규사업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59억원), 고창천 도시습주 방 종합사업(8억원), 만돌권역 거점개발사업(7억원), 전지훈련 트레이닝센

터 조성사업(25억원), 고창읍 동부리 새뜰마을사업(19억원), 아산·공음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13억원) 등은 연초부터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박우정 고창군수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한 노력의 산물로 풀이된다.

군은 건전 재정의 기본 틀 안에서 불요불급한 수요는 최대한 억제하고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을 위해 농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복지사각지대 해소, 도로망 확충과 개선,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과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2018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예산안은 다음달 14일까지 고창군의회 심의를 거쳐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특별 처리대책 추진

고창군이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채소류 등 음식물쓰레기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음 달 중순까지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특별 처리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2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홍보기간'으로 정해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김장철 쓰레기 수거·지연에 따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동수거반 운영 등 신속한 처리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본격적으로 김장쓰레기가 배출되는 이 기간 동안에는 부피가 큰 김장용

채소류 등을 하얀 또는 파란 비닐봉투로 배출할 경우 한시적으로 수거하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동수거반을 운영해 음식물쓰레기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군 환경시설사업소 관계자는 "채소류 등 김장쓰레기는 흰색 또는 파란 봉투를 사용하되 김장 쓰레기만 배출해야 하며 일반쓰레기와 섞어서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며 "김장철을 맞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특별대책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수성동, 아기 신분증 발급 '호응'

수성동주민센터가 출생을 축하하는 아기 신분증을 발급해줘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센터는 지난 2013년부터 인구 늘리기 특수시책 일환으로 관할 구역 내 출생아에게 아기신분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발급건 수는 매년 평균 100여명이다.

아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병원 진료와 놀이공원 입장 시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발급 대상은 1월 1일 이후 수성동에서 출생한 신생아다. 주민센터는 분기별로 부모의 신청서를 받아 무료로 발급하고 있는데, 4분기 발급 신청 기한은 이달 24일까지이다. /정음=김대환 기자

정읍시 열린혁신 구현 우수과제 6건 선정

시민참여·일하는 방식 개선·맞춤형 서비스 등 5개 분야

정읍시가 지난 16일 열린혁신 구현을 위한 우수과제로 5개 분야에서 모두 6건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다수의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열린혁신 우수과제 선정 위원회'는 당일 선정회의를 갖고 시민참여, 일하는 방식 개선, 맞춤형 서비스, 협업,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분야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시는 12월 중 우수 관련 부서에 대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행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춘 '열린혁신' 추진을 위한 동력 확보를 위해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2017년 열린혁신 우수과제 발굴' 공모를 시행했고, 모두 78개 과제가 접수된 바 있다.

이들 중에서 선정된 분야별 우수과제를 보면 먼저, 시민 참여 분야에서는 '정읍시민청안대회'와 '찾아가는

열린 시민제안 창구운영' 2건이 선정됐다. '정읍시민청안대회'는 주민제안 공모를 통해 단계별[1단계(시안,뿌리), 2단계(줄기), 3단계(열매)] 지역공동체를 육성하는 것으로, 전국적 지역공동체 활성화 성공 모델로 자리 잡으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찾아가는 열린 시민제안 창구운영'은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하고, 공공서비스를 찾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시민들의 제안과 정책을 발굴하고 시민들의 제안 참여를 장려하는 사업이다.

일하는 방식 개선 분야에서는 '영치 차량 제압업 납부 후 현지출장 번호관 부착서비스'가 선정됐다. 이는 영치차량 소유주가 체납세를 납부하면 공무원이 현지 출장, 영치된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해주는, 납세자 중심 서비스 제공 사업이다.

/정음=김대환 기자

맞춤형 서비스 분야에서 선정된 '정읍사랑 기술봉사단'도 눈길을 끈다. '정읍사랑 기술봉사단'은 2005년 9월부터 활동해오고 있다. 건축과 직원 등 직원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기부, 불우·소외계층의 주택을 개선해주고 있다.

협업 분야에서는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이 뽑혔다. 이 사업은 정읍·고창·부안 3개 시·군 협력사업이다. 남부시설인 재활용 선별장의 공동 건립과 운영으로 예산절감과 자원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분야의 '공간 정보 활용 입지분석'도 관심을 모은다. 구축된 인터넷 시스템에 입지분석 시스템을 도입, 토지 용도지역 등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토지 구입자에 제공한다.

시는 "이들 과제를 '정읍시 열린혁신 추진계획'에 수록, 중점 추진 관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 화재 없는 안전마을 행사 가져

정읍소방서(서장 김원술)가 지난 16일 오후 2시 태인면 삼리마을에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 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정읍소방서, 태인면사무소, 태인남 여성의용소방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30명이 동원됐고 마을주민 5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지난 2014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된 삼리마을에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재방문하여 안전의식 고취 및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사로 진행됐다. /정음=김대환 기자

부안경찰서, 이륜차 교통사고 집중 홍보·단속

부안경찰서(서장 이동민)는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11건 중 5건이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 이를 예방하려고 집중홍보와 함께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부안서는 중국집, 피자, 치킨 등 배달업소와 더불어 관내 노인정, 마을회관, 이륜차 판매업소 등을 방문하여 이륜차 안전운행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사고

요인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벌일 계획이다.

이동민 서장은 "이륜차는 이 동편의 등으로 배달업소나 노인층이 애용하나 안전도 미차용과 신호위반 등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아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농기센터, 장원별 증식보급 시범사업 평가회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7일 '장원별' 증식보급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회와 함께 관리기술교육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읍지역 양봉농가 40여명이 참석했다.

'장원별'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정부 장려품종 1호 꿀벌이다. 꿀벌의극심한 감소화로 양봉 선진국에 비해 꿀 생산량이 60%에 그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장원별은 기존 꿀벌에 비해 수밀력(꿀을 수집하는 능력)이 30% 이상 높다. 또 분군 내 정소력도 우수해 질병 저항성도 강하다. 이에 따라 벌꿀 생산량 증가는 물론 분군 유지 관리 비용도 획기적으

로 줄일 수 있다는 평가다.

관련해 시는 시범사업으로 올해 400만원을 들여 장원별 265분군을 양봉농가에 보급했다.

한편 당일 평가회에서는 장원별의 장·단점을 비교·분석 후 관리 기술 교육도 실시, 장원별의 조기 증식과 안착을 위한 방법 등을 모색하고 논의했다.

기술센터는 "평가회 결과를 기반으로 이후에도 장원별의 생태특성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특성에 맞는 관리기술을 마련해 정읍지역에 빠른 시일 내 확산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꿀 생산량과 농가소득을 높 이겠다"고 밝혔다.

/정음=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매를 따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E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E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E | 750ml 1ea/12%

GIFT SET 4E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E | 375ml 5ea/13%

GIFT SET 6E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o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